

문명의 윤곽... 예술은 어떻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문명

케네스 클라크 지음, 이연식 옮김

서구의 문화예술을 다룬 책 가운데 일반인에게 알려진 두 권을 고르라면 에른스트 고프브리치의 '서양미술사'와 케네스 클라크의 '문명'을 들 수 있다. 전자는 1950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미술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며 후자는 서양 문명의 역사를 살펴본 의미있는 저작이다.

두 책은 공통적으로 서구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본다. 당연히 주변부 세계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고프브리치는 유연하게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클라크는 동양의 언어를 모르고 동양의 문명을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일반적으로 '문명'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물질적인 측면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을 뜻한다. 당연히 물질과 연계된 문화적인 부분을 포괄한다.

서양 문명을 가로지르는 역사 이면에는 위대한 예술가와 작품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문명이란 무엇이며, 예술은 어떻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일까.

영국미술사학자 클라크의 '문명'은 서양 문명의 역사를 공식적, 통시적으로 다룬 책이다. 클라크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선형적인 관점과 동시대에서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관점을 취했다. 이번에 발간된 '문명'은 지난 1969년 케네스 클라크가 진행한 BBC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단행본으로 엮었다.

저자는 윈체스터와 옥스퍼드대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30세 나이에 내셔널갤러리 관장으로 발탁될 만큼 전도유망한 미술사학자였다. 영국 문화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1969년 다큐멘터리 '문명'을 제작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클라크는 다양한 분야를 종합무선 가로지르며 문명을 기술한다. 건축을 비롯해 조각, 회화, 음악, 문학, 철학 등에 걸쳐 저자의 심미안은 빛을 발한다. '예술 과학 철학, 그리고 인간'이라는 부제는 문명의 총체와 정신문화 그리고 인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한편의 대서사라 할 수 있다.

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미덕은 저자가 서양 문명의 '양극성' (polarity)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양극성은 "반대되는 주장이나 태도, 존재 등이 서로 맞서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자기의 존재 조건으로 하는 성질"을 뜻한다.

클라크가 고딕 성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채롭다. 아름다운 성자들의 형상에만 머물지 않고 그 시대가 '추한 것'으로 정의했던 괴물들 쪽으로 향한



바이킹 뱀머리 <사진: World History Archive Alamy>

다. 센 강을 거슬러 가는 바이킹의 기괴한 뱀머리 독창적이며 밀도있는 예술작품이지만 아반의 편협함이 낡은 산물임을 지적한다.

바로크는 가톨릭교회의 감정적인 열망을 표현한 데 반해 로코코는 자극적이며 세속적이었다. 로코코는 고대풍 사유와 질서보다는 자유분방함에 방점이 놓여 있었다. 조개껍데기나 해초 등 이중 곡선을 이루는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아카데미 한 양식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죽어가는 노예'에도 그러한



산드로 보티첼리 작 '봄' (1480년 경)

특징이 투영돼 있다. 조각상에 구현된 육체는 베로벤의 9번 교향곡 도입부처럼 대리석에서 울려나오고 안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표면이 거친 대리석은 주의를 집중시키면서도 조각된 인물을 가둔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손발이 묶이지는 않았지만 죄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무엇보다도 깊이 몰두했던 문제, 즉 스스로를 물질에서 해방시키려는 영혼의 고투를' 드러내는 것이라 여겼던 모양이다.

한편 책을 옮긴이는 서울대 미술대학에서 서양

화를 전공하고 한예중 예술전문사 미술이론 과정을 마친 이연식이다. 그는 "클라크는 문화와 예술의 산물에 대한 무지막지한 파고를 문명의 적으로 규정하여, 그들이 사물의 윤곽을 드러내듯 문명의 윤곽을 드러내도록 한다"며 "그는 추상적인 기준보다는 구체적인 작품과 건축물, 인류가 지성과 갈망으로 쌓아온 것들을 펼쳐 보여주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빛인지에 대해 거듭 묻는다"고 언급한다. (소요서가 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씨유 어게인

김지운 지음

정금남 할머니는 수수께끼 같은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독특 튀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의 소유자다.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도시락집 할머니이지만 매일 영어를 공부하기도 한다. 사투리가 가미된 콩글리쉬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패션 트렌드에 밝고 요가, 필라테스도 즐길 줄 안다. 한편으로 헤자 도시락에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으며 간혹 도시락에 메모를 넣어 동네 사람들의 끼니까지도 참견한다.



장편 소설 '씨유 어게인'은 매력적인 금남 할머니 인생에 관한 이야기다. "말 못 할 고민이 있다고? 내 밥만 먹으면 만사 노 프라블럼이여!"라고 외칠 만큼 친근하면서도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영상미가 특징인 김지운 작가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데 관심이 많다. 첫 번째 장편 '연남동 방글방글 빨래방'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뮤지컬로도 제작됐다. 특히 올해 런던도서전 최대 관심 작품으로 소개됐으며 현재 영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 판권이 수출됐다.

이번 장편은 오지랖 넓은 금남 할머니의 일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보통의 오지랖과 달리 그녀의 참견은 결코 무개념적이지 않다. 자기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공감하려고 한다.

소설에는 금남 할머니 외에도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 손흥민,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30대 간호사 해영, 마성의 보이스를 지닌 달걀장수의 짝사랑 이야기 등 등장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딘가 있을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는 때론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게 한다. 남녀노소 다양한 캐릭터들의 고민은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클레이하우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대가야 여행

황윤 지음

"아름다운 자연보다 잘 짜인 박물관이 더 좋은 이유는 인간이 함께 쌓아온 지식과 문화의 총체가 담긴 공간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에 더 근사한 박물관들이 만들어지길 고대한다."

'박물관을 사랑하는 남자' 황윤이 쓴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대가야 여행'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효과적이고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을 담은 역사 여행 에세이다.

가야 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 유산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함천 옥전 고분군, 함안 말미산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장영 교동·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두라리 고분군이 해당된다.

가야 고분군들이 여러 지역에 분포하기는 탓에 여행 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황윤 작가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으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은 고려의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함천 해인사에서 출발해 고령, 함천, 함안, 창녕을 지나 임나일본부와 우륵의 가야금으로 끝을 맺는다.

책은 그동안 제한된 자료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가야, 그중에서도 대가야의 다양성과 국가적 위상을 재조명한다. 또한 영역과 이름 등으로만 언급되던 소국 집합체인 대가야의 실체를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묘사해 현실감 있게 다가오도록 했다.

저자는 에필로그를 통해 7개 고분군 외에도 가야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내 가야 전시실을 추천했다. <책읽는 고양이·1만8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명나라의 정유전쟁(전 4권)

형개 지음, 구병진 외 4인 역음

1592년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났던 임진왜란에 이어, 1597년 재차 벌어진 왜란을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명·일 강화 교섭의 기만성이 드러나면서 1596년 9월 강화회담이 결렬됐고, 이후 울산을 포함해 한반도 8도는 불바다가 됐다. 정유전쟁의 전말을 명나라 입장에서 면밀히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정유재란 당시 명군의 최고 지휘관 형개의 '경략어왜주(經略禦倭奏議)'를 엮은 역주서 '명나라의 정유전쟁(전4권)'이 그것.



책은 정유재란이라는 비극사를 명군의 시각에서 풀어낸 국내 최초의 국역서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임진왜란-정유재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다. 그동안 임진전에 대한 연구는 한-일 사료에 의존했기에, 전쟁의 한 축이던 명나라 역할을 살펴볼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1~3권에는 각각 '출병 준비', '반격과 종전', '전후 처리'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4권에는 교감, 표정한 한문 원문 등을 수록했다.

저자는 1601년까지 일본군의 재침공에 대응하는 명군의 상황 인식과 대처를 면밀히 기록했다. 1598년부터 명나라가 병력과 물자를 조선 일원으로 이동시켰던 이야기, 전쟁 초기에 왜군에 대패해 도망친 명군 장수를 처형한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직산 전투에서 일본군을 꺾은 뒤 조선군과 함께 울산왜성을 포위 공격했던 비화도 들을 수 있다. 경략어왜에 임명됐던 형개 시점으로 전황을 기록해, 조선이나 일본의 역사자료를 통해 볼 수 없던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역주는 '한중관계사료연구팀'이 맡아서 진행했다. 중국 근세사는 물론 조선역사 전공자, 명칭 및 조선 외교문서 전문가들이 모여 팀을 꾸렸다.

<사회평론아카데미·전권 10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